국방일보-국방기술품질원 공동기획

세계 무기 동향

독일 국방부는 G36 돌격소총 대체 사업과 MG4 A3 경기관총 도입 등 새로운 화기에 대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MG4 A3 경기관총의 경우 전력화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G36 돌격소총 대체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터보팬 엔진이 장착된 윈드 섀도 스텔스 중/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항공기가 국영방송사인 CCTV를 통해 모습이 공개됐다. 중국기상청은 발표문을 통해 공개한 무인항공기가 Yilong-10 무인항공기라고 했으나 CCTV 방송사가 뉴스 화면에서 보여준 무인항공기는 AVIC가 비밀리에 개발한 윈드 섀도 무공항공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근 다차원 부대의 첫 번째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다차원 부대는 상호운용성과 네트워크 기반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로 보병, 장갑, C4I, 정보, 공군 요소를 등 다양한 병과가 편제돼 있다. 임채무 기자

독일 신형 경기관총 전력화 진행

MG4 A3 경기관총 3주간 시험하며 순조로운 진행

G36 소총 대체는 의회서 승인 연기

독일 국방부가 신형 경기관총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 장병이 MG4 A3 기관총의 시험 운용하고 있는 모습. 출처=janes.com

독일 국방부가 G36 돌격소총 대체 사업 및 MG4 A3 경기관총 도입 등 새로운 화기에 대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G36 돌격소총 대체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독일 의회는 G36 돌격소총 대체안에 대한 승인을 다시금 연기했다.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손타크는 독일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의회가 G36 돌격소총 대체안에 대한 승인 검토를 오는 10월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상의 무기 제조업체의 법적인 이의 제기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변인은 "대체용 무기체계는 명확하고 투명한 사용자 요구 조건을 따라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비해 MG4 A3 경기관총의 전력화는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다.

독일 육군은 최근 공정부대원이 바움홀터 지역 사격장에서 3주 동안 MG4 A3 경기관총을 시험했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시험에 참가한 제26공정연대 소속 마이어 하사는 "MG4 경기관총은 G36 소총과 MG5 기관총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며 "작전 간 개별 및 집단 표적에 대항해 엄호 사격 또는 돌격 지원 등에 MG4 경기관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총수는 엎드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심지어 선 자세 등 다양한 자세에서 경기관총으로 응사가 가능하다"면서 "MG4 경기관총은 갑자기 나타나는 적을 대응하는 데 이상적인 무기"라고 평가했다. MG4 A3 경기관총은 사격시험과 간단한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윈드 섀도 무인항공기 일부 공개

밀리미터파 레이더 장착…국영방송서 공개

중국은 중국기상청과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터보팬 엔진이 장착된 윈드 섀도 스텔스 중/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항공기를 국영 방송사인 CCTV를 통해 지난 3일 공개했다.

중국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레이더 등이 장착된 기상관측 임무용의 고고도 기상 관측 무인항공기가 지난 2일 태풍 실라코가 통과할 때 하이난성 남부에 위치한 보아오 공항에서 이륙했다. 이 무인항공기는 약 3만2808피트(1만m)의 고도에서 순항했으며 태풍에 인접해 기압, 습도, 대기 응결, 온도, 풍향, 풍속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획득하고 실시간으로 공항 내 지상통제소로 전송했다고 한다.

중국기상청은 무인항공기 비행 간 기상 측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무인항공기 기반 관측 및 예측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하이옌(Haiyan) 사업에 대한 마일스톤(이정표)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기상청과 중국항공공업그룹이 국영 방송사인 CCTV를 통해 공개한 무인항공기의 모습. 출처=janes.com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중국기상청은 발표문을 통해 공개한 무인항공기가 Yilong-10 무인항공기라고 했으나 CCTV 방송사가 뉴스 화면에서 보여준 무인항공기는 AVIC가 비밀리에 개발한 윈드 섀도 무공항공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AVIC는 이 무인항공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개발한 Wo Shan-500(WS-500/Turbofan-500) 소형 터보팬 엔진 2개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6월부터 개발된 이 엔진은 첫 번째 견본이 2004년 조립됐으며 중국항공엔진그룹이 수출용 AEF50E 엔진으로도 마케팅하고 있다. 또 무인항공기에 부착된 터보팬 배기관 노즐은 기체의 오리너구리 꼬리 구조 내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는 적외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설계상의 특징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도 이 무인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구조 2개를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위군 다차원 부대, 첫 연습 성공적 완료

전투기 운용 표적 공격 등 획기적 능력 사용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근 다차원 부대의 첫 번째 연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작전 준비태세가 한층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이번 연습은 여러 병과가 참여해 다차원에서 전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에는 공군과 정보국, 사이버 방어국 소속 부대를 비롯해 다양한 화력부대까지 참가했다.

장병들은 훈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 표적을 공격하는 기술 등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개발한 획기적인 능력을 직접 사용했다. 이 기술은 장차 이스라엘 기동부대가 활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된 연습 장면을 보면 장병들은 기관총을 장착한 로브팀(Robteam)사의 프로봇 무인지상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사용했다. 또 건물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쿼드콥터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해 지속적인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 다차원 부대 장병들이 첫 연습에서 무인지상차량을 이용한 건물 돌입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janes.com

다차원 부대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상호운용성과 네트워크 기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추진하는 모멘텀 계획의 하나로 1년 전에 창설됐으며 보병, 장갑, C4I, 정보, 공군 요소를 편제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병단 예하 야할롬 부대 요원, 골라니 보병여단 정찰부대 요원, 제35공정여단 요원,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등도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다차원 부대의 인원수를 밝히진 않았으나, 통상 대대를 지휘하는 계급인 중령이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다. 자료 제공=기품원(글로벌디펜스뉴스)

▮ 편집=조성묵 기자